



2011년, NFRI는 우리가 책임진다!

건설관리부서 산하 건설사업팀 & 시설보안관리팀

상단 왼쪽부터_ 김오진(시설보안관리), 이우진(건설사업), 최영찬(건설사업), 이형주(시설보안관리), 현상윤(건설사업)
 하단 왼쪽부터_ 김남규 팀장(시설보안관리), 황인성 부장(건설사업), 심규영(시설보안관리), 김정애(건설사업)

밤사이 도둑눈이 슬며시 지나간 11월의 어느 날, 건설관리부서의 건설사업팀원들과 시설보안관리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모두, 쾌적한 실험환경 조성 및 KSTAR를 포함한 각종 시설에 대한 보안·안전관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저물어 가는 2010년의 끝자락에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들의 희망찬 포부를 들여보자.



■ 한 해의 일획을 그으며

회의실을 가득 채운 먹의 향,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접하지 못했던 붓과 한지를 마주한 팀원들의 눈이 모두 동그아졌다.

“와, 이게 얼마 만에 잡아보는 붓이야~ 중학교 이후로 처음이네!” 신기함과 반가움이 교차한 것도 잠시, 이내 모두들 한지를 잡고 무엇을 적어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새해의 소망을 적어야 한다는 언질은 받았지만 막상 하이얀 한지를 대면하니 마치 새하얀 눈이 내린 깨끗한 들판에 고심해서 첫발자국을 찍어야 하는 심정이 되어버린 것이리라. 한편에서는 연습용 신문지 위에 연신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턱을 쾅 채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그런 팀원들을 보면서 황인성 부장이 과감히 첫 획을 긋는다. ‘우공이산(愚公移山)’. 망설임 없이 붓이 지나간 자리에 중국의 철학서 ‘열자(列子)’의 성어가 자리를 잡았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라는 이 성어는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어 황인성 부장은 네 자의 한자 옆에 작은 괄호를 열고 ‘내 집을 짓는 마음’이라 덧붙인다. “현재 첨단연구개발동 건설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 집 짓는 마음으로, 또 우공(愚公)처럼 부단히 노력하여 연구원들에게 쾌적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새해 소망을 적어보았습니다.” (황인성 부장)

건설사업팀은 올 한 해 KSTAR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MG동 설계 및 첨단연구개발동 설계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향후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미래가 담긴 세종시와 새만금 부지확보라는 목표를 세운 건설사업팀이 긋는 한 획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가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다.



■ 바보처럼 열정적으로

“손을 이렇게 딱 붙이고 움직이지 말아야 글씨가 잘 나오지.” 붓글씨가 익숙치 않은 몇몇 연구원들이 한지를 거듭 요구하자, 한쪽에서는 종이를 준비하는 막간을 이용하여 서예 강의도 펼쳐진다. 강의에 힘입어 자세를 다시 잡은 이우진 씨는 잠시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붓글씨에 집중한다. 부서 유일의 홍일점 김정아 씨는 얼굴만큼 어여쁜 하트를 넣어 부장님의 건강을 기원했고 가장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최영찬 씨는 큼지막한 글씨로 ‘연.봉.대.박.’ 한 글자 한 글자를 힘주어 적는다.

뒤늦게 회의실에 도착한 시설보안관리팀 김남규 팀장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스티븐 잡스의 스탠퍼드대 졸업 축사로도 유명한 문구인 ‘Stay hungry, Stay foolish’를 써내려갔다. 자신이 쓴 문구를 내려다보며 2010년 한 해는 시설보안관리팀에게 격동의 한 해였다고 회상하는 김남규 팀장. “이번 해는 G20과 연평도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보안측면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도전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어리석을 정도로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남규 팀장)



■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각자 자신의 새해 소망을 적은 한지를 들고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회의실 밖으로 향하였다. 두 개의 벤치 좌우로 모여 앉은 부원들의 생김생김만큼 다양한 새해 소망들이 펼쳐졌다. ‘도전! S라인’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등 한글, 한자 그리고 영어로 다양하게 풀어낸 그들의 새해 소망들. 이 새해 소망들을 보며 우리는 정말 여러 다른 생각과 꿈들을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하지만 가끔은 설 새 없이 몰아치는 격무 속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무관심해 지곤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업무와는 상관없이 지나가는 한 해의 기억과 다가오는 새해의 소망을 나누는 동안 바로 옆에서 함께 하는 동료와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들은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물론 해야 하는 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일을 사람들과 해나갑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관계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할테지요.”(이형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그리고 화합이 빛나는 건설사업팀과 시설보안관리팀의 2011년은 2010년보다 한층 더 풍성할 것이며 이들과 함께 하는 NFRI의 앞날은 더없이 든든할 것이다. NFRI

